"특교금 차등지급 교육자치 훼손하는 갑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강력 비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4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교육부의 행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기하고 각 시도 교육의 특수성, 개별성, 자율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전체 100점 만점에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적성 항목'의 배점이 무려 21점이나 부여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 일명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교육감은 지적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적시에 편성했는지 여부도 평가 항목에 집어넣은데 대해서 "정부가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집어넣은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강행하는 숨은 의도는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와 줄세우기이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전북교육을 훼손시키는 일을 교육감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들어 지진 발생이 급증한 점을 들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경우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 시민사회단체 육성

전북도교육청, 2017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선정 결과 발표

전라북도교육청이 2017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전북지회의 2017년도 사립유치원 교사 직무연수 등 총 55개 사업 9억3천8백5만원이다.

최종 결정된 사업은 학교교육과 2개 사업, 교육혁신과 7개 사업, 인성건강과 40개 사업, 미래인재과 6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과 방문접수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3개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심사와 21일 전체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했다.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중 최종 확정된다. 또한,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사후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해 보조사업 심사에 반영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대상사업을 접수하였으며, 민간위원이 3/4이상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여 민간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학교체육활성화 도모

2016 전북소년체육대회·제46회 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선수 1차 선발전

전라북도교육청은 건강한 학교체육활성화와 행복한 학생 육성을 위하여 2016 전라북도소년체육대회 겸 2017년 개최 예정인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대표 1차 선발전을 11월부터 12월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전라북도학생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소년체육대회로 대회명을 변경하여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학령기의 청소년까지 참여를 이끌어 낼 단초를 제공하여 전라북도의 모든 학령기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을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과 우수한 꿈나무의 체육진로를 위하여 도내 초·중학생 재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육상 등 총 27종목을 개최하며, 특히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일반학생들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초등학교(4, 5학년부), 중학교부(초6, 1, 2학년)로 운영되며, 종목별 경기는 주말에 개최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 및 가족, 친구들의 응원도 용이하게 했다.

경기운영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여 운영되며,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운영규칙을 따르며 시합 후에는 현장 시상식을 개최해 참가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부여하며, 각 종목별 도대표 선발 선수(팀)에게는 동계훈련비가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체육영재 조기발굴,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 등 바람직한 학교체육 문화를 선도하고 우수 꿈나무 조기 발굴을 통해 학생 선수 육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 고등부 선수단은 지난 10월 중순에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7개를 획득하여 전북 9위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군산

관내학교 24개팀 진출

대한체육회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하는 제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전북대표 출전팀이 최종 결정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개최한 2016 전라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총 12종목에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표해 390여개팀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 83개팀이 가려졌다. 군산지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 총 16개 학교 24개팀이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권을 획득해 도내 전체 진출팀의 30%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쾌거 뒤에는 건강한 신체속에 바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에 누구보다 앞장 선 군산교육지원청(김원태교육장)의 꾸준한 지원과 격려가 숨어있었다. 김원태교육장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진행하면서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 및 재정지원을 통해 이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군산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엘리트 선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공부와 신체활동을 양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전국대회 최다 출전권 획득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공부와 체육활동 두 가지 모두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행복한 학교문화를 주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제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는 전국 17개 시, 도에서 2만 1084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24개(정식종목 19개, 시범종목 5개) 종목에서 전국 최고의 왕관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수학으로 즐기다!

제8회 전북수학체험 한마당

전라북도과학교육원(원장 국강옥) 전북수학체험센터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제8회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은 입체의 세계, 공간의 세계, 수의 세계, 곡선의 세계, 평면의 세계, 정다면체, 퍼즐의 세계, 키즈 부스, 학부모 부스, 수학전시, 수학클리닉(초등, 중등 상담) 등 11개의 소주제로 55개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전년대비 체험부스 75%가 새로운 주제로 설치 운영되어 체험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학체험의 마당을 마련하였다.

초·중·고 59개 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인 '수학 구조물 만들기 대회', 초등과 중등의 다양한 변형오목게임, 가족과 함께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리 만들기와 소프트 블록 높이 쌓기 대회 등이 이틀 동안 꾸준히 열려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일대에서 이루어진 '수학 산책'은 나무의 키 재기, 가지 성장의 법칙, 단풍나무 씨앗의 수학적 원리 및 놀이하기, 풀잎을 이용하여 배와 물레방아 만들기 등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수학의 원리를 찾고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무나 꽃이 있는 학교나 숲 어느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한옥마을 수학 산책과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학습 및 인성교육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학부모 특강은 3가지 주제(사고력을 키우는 수학, 수학공부를 어떻게 할까, 수학을 왜 배울까?)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만났으며, 강의와 함께 더불어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은 운영교사 70여 명, 부스별 학생도우미 200여 명 등 270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활동하였으며, 약 6,000명의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인 등이 수학체험 한마당을 즐겼다.

김승환 교육감을 대신하여 김경호 교육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국강옥 과학교육원장은 "해마다 열기를 더하고 있는 수학체험 한마당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노력으로 수학교육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북수학체험센터 관계자는 "수학체험 한마당은 학생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고 가까이 우리 생활 속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에 떠올릴 수 있다면 수학이 훨씬 쉽고 즐겁게 다가올 것이며, 교사들에게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 하는 유익하고 즐거운 수학체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울러 "수학체험 한마당이 끝난 후 여러 체험부스에서 운영된 다양한 교구와 체험도구들은 기존에 구입한 다양한 수학 교구와 함께 전북수학체험센터를 통하여 지역 및 일선학교에 대여하여 수업 및 둥아리 활동에 활용된다"고 밝혔다.